



반도체 투자 심리 위축되며 하락

미국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 확산
외국인·기관, 양 시장 동반 순매도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820.60pt (-6.37%)	791.84pt (-4.53%)	1,080.36pt (-7.18%)
달러-원 환율	韓 10 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77.80 원 (-9.2 원)	4.2970% (-3bp)	7,610.50pt (-0.06%)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6,629 억	+4,466 억	-3,442 억
외국인	-13,936 억	-3,066 억	+7,014 억
기관	-23,690 억	-1,562 억	-3,210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마이크론이 8%, SK하이닉스 ADR이 9%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부각됐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전력망 과부하와 환경 문제로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향후 1년간 신규 인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중국 최대 DRAM 기업 CXMT의 과당판 상장이 임박하면서, CXMT의 저가 공세와 물량 확대 우려가 기존 메모리 3社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날 KOSPI는 6.37%, KOSDAQ은 4.53%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29.4조원, KOSDAQ은 약 4.6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한편, 한국은행은 오늘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은 KOSPI를 동반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IT 서비스와 음식료/담배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화학과 통신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조선주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하락했던 소비재와 게임주가 반등했습니다. 금융, 통신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종 전반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전력기기 업종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화재(+6.05%), HD한국조선해양(+5.67%), SK텔레콤(+5.53%)이 올랐고, SK하이닉스(-11.53%), 한미반도체(-10.02%), 삼성전자(-8.77%)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